

100m 한국기록 보유자 광주시청 김국영이 유튜브 채널 만든 이유는

“육상 노하우 공유...중·일 따라잡자”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29·광주시청)은 '점점 격차를 벌리며 앞서가는 일본·중국 육상'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망주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어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줄었다.

이에 김국영은 온라인으로 육상 유망주, 일반 팬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김국영은 3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한국 육상을 알리고, 유망주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싶었다"며 "미력하나마 한국 육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국영은 2일 첫 영상을 올렸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육상 소개, 훈련법, 유망주를 위한 조언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국영은 "일본·중국과 한국 육상의 격차는 정말

격차 벌어지며 한국육상 위기감

유망주들 멘토링하고 팬들과 소통

훈련법·조언 등 담은 영상 제작

“내 경험 아낌없이 전달할 것”

크고, 점점 벌어진다. 선수층의 두께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며 "축구 유망주들은 손흥민 선수를 보며 동기를 얻는다. 우리 육상 유망주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비에사, 박원진, 양예민 등 한국 육상에도 좋은 유망주가 등장했다. 그러나 압박감, 부담감에 익숙하지 않은 유망주들을 바탕으로 물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며 "슬럼프에 빠진 유망주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싶다. 유망주,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국영은 19세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왔다.

그는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을 기록해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꿔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10초23을 기록하며 포효했다. 새로운 한국기록이었다.

김국영은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10초1대의 기록을 낸 스프린터가 김국영이다.

2017년 6월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에서 10초13으로 기록을 경신하더니, 이를 뒤인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 100m 결선에서는 10초07에 결승



그 선수들은 아직 유망주이기 때문에

한국 육상 100m 한국기록보유자인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이 육상 유망주 및 일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김국영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장면. /연합뉴스

선을 통과하며 개인 다섯 번째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 남자 100m 최초로 10초0대에 진입한 선수도 김국영이었다.

국내에서는 김국영을 상대할 스프린터가 없다.

그래서 김국영이 느낄 압박감도 컸고, 이를 극복하며 환희도 느꼈다.

13년째 한국 육상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국영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달할 생각이다. /연합뉴스

토틀넘 구한다...손흥민 골 사냥

내일 새벽 첼시와 22라운드

침묵 깨고 득점포 재가동 기대

최근 5경기에서 골 침묵을 이어간 손흥민(29·사진)이 연패에 빠진 토틀넘을 구할까.

손흥민의 소속팀 토틀넘은 5일 오전 5시(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틀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EPL) 2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틀넘은 현재 리그 6위(승점 33·골 득실 +13)에, 첼시는 7위(승점 33·골 득실 +12)로 토틀넘이 득실 차에서 단 한 골만을 앞선다.

2연패에 빠진 토틀넘은 승리가 더욱 간절하다.

토틀넘은 지난달 29일 리버풀에 1-3으로 완패한 데 이어 이날 1일에는 하위권 브라이턴에 0-1로 무릎을 꿇으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리버풀전에서 발목을 다친 해리 케인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토틀넘의 공격은 더 답답해졌다.

브라이턴전에서 손흥민과 개러스 베일, 스티븐 베르흐베인이 최전방에 나섰으나 공격이 매끄럽

게 이어지지 않았다.

'단짝' 케인이 빠지면서 손흥민의 외로움도 커졌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을 강조하지만, 손흥민과 '원투 펀치'로 호흡을 맞추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역습은 맥없이 차단당했고 손흥민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혀 슈팅 2개를 시도하는 데 그쳤다.

첼시전에도 케인은 없다. 그가 돌아오는 데는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케인 없는 토틀넘이 '믿을 구석'은 결국 손흥민이다. 손흥민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12골 6도움(시즌 16골 10도움)을 올려 케인,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으나, 최근 5경기(리그 4경기·FA컵 1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었다.

지난달 17일 셰필드전, 25일 위컴과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2강에서는 도움 한 개씩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그간 EPL에서 10차례 첼시를 상대해 2골을 기록했다.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담벼



만하다.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다시 발끝 감각을 살려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토틀넘의 침체한 분위기도 끌어올릴 수 있다. /연합뉴스



남구 스포츠클럽 실사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지난 2일 광주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점검하고 있다. 행복남구 앙골스포츠클럽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인프라를 토대로 '학교연계형(한중목) 스포츠클럽 공모'에 참가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유벤투스 구했다...호날두 멀티골

코파이탈리아 4강 1차전

인터밀란에 2-1 역전승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의 멀티 골을 앞세워 코파 이탈리아(이탈리아 컵) 4강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유벤투스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 경기장에서 열린 인터 밀란과 2020-2021 코파 이탈리아 4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 승리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유벤투스는 10일 인터 밀란을 홈으로 불러들여 2차전을 치른다. 선제골은 인터 밀란이 뽑았다.

전반 9분 니콜로 바렐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열린 크로스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지역으로 쇄도하며 차 넣었다.

한 골을 내준 유벤투스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23분 후안 파드라도와 인터 밀란의 예술리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영커 넘어졌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끝에 유벤투스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전반 26분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9분 뒤에는 호날두의 결승 골이 터졌다.

호날두는 인터 밀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챈 뒤 왼쪽 측면으로 쇄도했다.

상대 골키퍼가 습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호날두의 슈팅이 빈 골문을 갈랐다.

인터 밀란은 후반 12분 동점 골을 터트리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알렉시스 산체스의 슈팅을 수비수 메리호 데미탈이 골문 앞에서 몸으로 막아내 무산됐다.

후반 상대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낸 유벤투스는 한 골 차 리드를 지켰다. /연합뉴스



호남대 펜싱 선수인

시체육회 인재장학생 선발

호남대학교 펜싱부 선수인(스포츠레저학과 3년·사진)이 광주시체육회 체육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전수인은 '2019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펜싱 여자 사브르 부문 개인·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동메달 2관왕'에 오르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로 창단 10년을 맞는 호남대 여자펜싱부는 2012년 제14회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국내대회 단체전(우승 5회, 준우승 4회)과 개인전(우승 3회, 준우승 4회)에서 주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권순우, 2회전서 탈락

호주 멜버른 투어 대회

권순우(97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그레이트 오션 로드오픈(총상금 32만775 달러) 단식 본선 2회전에서 탈락했다.

권순우는 3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미오미르 케츠마노비치(42위·세르비아)에게 0-2(3-6 4-6)로 졌다.

이틀 전 1회전에서 안드레이 마르틴(102위·슬로바키아)에게 2-1(6-3 6-7<5-7> 7-6<7-4>) 승리를 거둬 올해 첫 승을 따낸 권순우는 케츠마노비치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노렸으나 1시간 42분 만에 패배가 확정됐다.

권순우는 8일 같은 장소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 출전한다.

권순우는 지금까지 호주오픈 본선에 두 차례 출전했으나 2018년과 2020년에 모두 1회전 탈락했다.

권순우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올해 메이저 대회 3회전 진출이 목표"라며 "올림픽에서도 한 번 미쳐서 메달까지 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2관 소울
- 3관 세자매, 이안에 외계인이 있다
- 4관 소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 5관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6관 소울
- 9관 에니스트 씨프, 해피 투게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
- 7관 세자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 8관 세자매, 소울, 북스마트, 커넥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